

## 주요 기관이 바라본 지정학과 무역의 상관관계

- ◆ 미·중 양국 간 무역 의존도는 '18년 이후 지속적인 완화를 기록
- ◆ 서구·중국 기업의 위기관리에 아세안, 브라질, 인도 수혜 전망
- ◆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분리된 경제는 세계 GDP의 1.5% 하락 야기

### I. 개요

- 최근 무역 화두로 '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다각화' 부상
  - 기업의 공급망 관련 용어 사용량은 최근 5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
    - 물류 이동의 어려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두된 공급망 문제는 이후 연이은 지정학적 위기 고조\*로 심화·고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됨.
    - \* 미국-중국 경쟁, 러시아-우크라이나 분쟁, 중동 사태 등
    - 지정학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렵고, 이로 인한 공급망·무역 변화는 강제성을 가져 추후 무역 통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多
- 주요 기관은 지정학의 영향력을 민감하게 연구 중
  - 특히, 지리적, 지정학적 거리\*를 기반으로 한 무역 동향 분석에 관심 집중
  - \* 국별 UN 총회 의제 표결 성향을 기반으로 국가 간 대립 정도를 구분
    - '22년 러·우 분쟁 이후, 국가별로 UN 총회 의제 표결 성향은 더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는 0~10 내 선정
    - \* 미국·유럽연합의 지정학적 위치를 0으로 선정할 경우, 중국·러시아는 9~10에 위치
    -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(MGI)는 이에 더해, 각국의 무역 상대국과의 지정학적 거리도 고려한 분석을 시도했으며, 지정학적 거리는 0~7 내 선정
    - \* 0에 가까울수록 우호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으며, 7에 가까울수록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음
    - 상기 기준으로 '21년 국별 무역 동향을 분석할 경우, 미국(0, 4), 일본(1, 4.5), 대한민국(2, 4.5), 러시아(9, 5.5), 중국(10, 6)의 결과가 도출됨.

### II. 상세 내용

-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분석한 주요국 무역 동향('17~'23년 통계 기준)
  - \* Geopolitics and the geometry of global trade, MGI, 24.1.17
- ① 미국
  - 유럽(+2.9%), 멕시코(+1.4%), 베트남(+1%), 중국(△5.8%), 중동(△0.8%)
  - 미국은 다양한 제조 부문에서 중국을 제외하며 수입원을 다양화
    - 기존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제조품 수입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대체, 에너지 자원 수출 증가와 의약품 수입 증가로 유럽과의 무역 비중 증가
    - 특히, 미국 제조품 수입 내 중국 비중은 '17년 24%에서 '23년 15%까지 감소했으며, 전자제품은 점유율이 50%에서 30%로 가장 큰 내림세 기록
    -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제3국이 조립한 제조품이 수입된 경우를 고려할 경우, 최종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증가했을 가능성 유력
- ② 중국
  - 아세안(+2.3%), 러시아(+2.0%), 중동(+1.3%), 남미(+1.3%), 유럽(+0.6%), 미국(△3.8%), 일본(△2.5%), 한국(△2.0%)
  - 중국은 기존 대상국과의 거래를 축소,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확대 기조
    - 중국 상품 무역 내 개발도상국 비중은 '17년 42%에서 '23년 50%까지 증가, 인도네시아와 호주와의 니켈, 리튬, 철광석 등 원재료 무역 확대가 주요인
    - 중국의 수입품 중에서 아세안이 일본과 한국의 전자제품 비중을, 브라질이 미국의 농업 비중을 대체하고, 중국의 기계·운송 장비 수출은 미국에서 러시아·중앙아시아, 전자제품 수출은 미국에서 아세안·유럽으로 전환됨.
    - 총 상품 무역은 '06년 GDP의 64%에서 '22년 GDP의 35%까지 감소했으며, 중국은 경제 발전 이후 수입품보다 국내산을 더 선호하는 소비 경향을 보임.

### ③ 독일

- 미국(+1.0%), 폴란드(+1.0%), 중국(+0.4%), 영국(△1.4%), 러시아(△2.0%)
- 러·우 분쟁 이후 유럽연합-러시아 간 무역은 '22년 2월 이후 약 80% 감소
  -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%에서 1%로 감소했으며, 노르웨이(14%)와 미국(7%)이 에너지 공급원을 대체
- 중국산 수입품 비중은 '17년 19%에서 '23년 21%로 증가
  - 독일의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 비중은 '17년 24%에서 '23년 30%로 증가했으며,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은 '17년 1%에서 '23년 25%까지 증가

### ④ 기타 개발도상국

- 對 중국·러시아 투자는 팬데믹 이전 평균에 비해 각각 70%, 98% 감소
  -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과의 지리적·지정학적 거리가 좁고 물동량은 큰 아세안, 브라질, 인도가 신규 투자처로써 혜택을 받을 전망

### □ 힌리치(Hinrich) 재단이 바라본 지정학의 영향력

- \* The Deglobalization Myth: How Asia's supply chains are changing, Hinrich Foundation, 24.1.9
- 지정학의 대표적인 영향력으로 (1) 높은 관세·제재로 인한 거래 비용 상승, (2)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꼽음
  - (1) '10년 초반부터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체 제조 기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, '18년 미·중 간 관세·제재 증가는 이전을 가속화
  - (2) 미국의 반도체 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적인 노력은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성을 암시하며 기업들의 공급망 변화를 강제
- 기업들은 공급망 변화, 생산기지 이전이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이 아님에도 장기적인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결정을 단행
  -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정학적 거리를 고려한 이동은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킬 전망

### ○ 미·중 무역 관계도 분석

- 미·중 무역 상품은 크게 3개 분류이며, (1) 전략물자\*, (2) 잠재적 수출통제 대상인 이중 용도 기술, (3) 그 외의 의류, 소비재, 농업 상품 등
  - \* 반도체,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·알고리즘, 생명공학, 위성통신, 첨단 로봇 공학 등
- 미·중 간 지정학적 거리가 멀어지는 현재 전략물자 거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, 대립이 심화할수록 이중 용도 기술로 영향이 확대될 전망
- 양국 간 대립이 본격화한 '18년 이후, 미국의 중간재 수입 내 중국의 비중은 '18년 18.5%에서 '22년 14.1%로 감소했으며, '23년 상반기 11.4%까지 하락

### ○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핫스팟(hot spot)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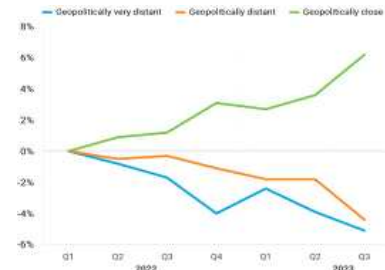
- 서구·중국 기업 모두 높은 생산성과 낮은 정치적 위험을 지닌 생산기지로의 확장을 요구받으며, 베트남·인도네시아는 미국·중국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

### □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이 분석한 지정학의 영향력

\* Global Trade Update, UNCTAD, 23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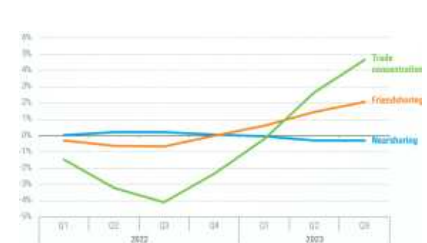
- 지정학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 간 무역 증가를 보고('22~'23년 3분기 기준)
  - '23년 3분기 기준, 지정학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 간 무역액이 '21년 무역액 대비 6% 증가했으며, 무역 집중도는 5%, 프렌드쇼어링은 2% 수준 증가
  - 다만, 니어쇼어링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며, 지정학적 거리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상품들의 무역은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

< 지정학적 거리에 따른 무역액 추이 >



[자료] 유엔무역개발회의

< 우호국 간 무역 집중도 변동 추이 >



[자료] 유엔무역개발회의

### Ⅲ. 시사점

#### □ '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' 동향

- 각국의 무역 재편 노력은 지속 중이나, 성과 도출에는 한계
  - 세계 상품 무역 가치의 10%는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으며, 3개 이하의 국가가 세계 수출 규모의 90%를 차지하는 핵심 물품\*들도 다수 존재
  - \* ex) 중국은 네오디뮴 자석 수출량의 85%, 미국은 고순도 석영 수출량의 85% 수준을 담당
  - 지정학에 따른 무역 대상 전환은 공급망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난도 있는 과제지만, 미국은 일부 무역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전환하며 예외를 기록
- 중간재 수입 비중 고려 시, 유럽연합의 중국 의존도 완화는 난도가 증가
  - '18~'22년 기준, 독일의 중간재 수입품 내 중국의 비중은 11.1%에서 15.9%로 상승, 영국 내 중국 비중은 10.3%에서 15.1% 상승 기록
  - 현지 언론은 유럽연합이 올해 해외투자 모니터링, 수출통제 등 대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프랑스, 독일 등 주요 경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통일된 규범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

#### □ 지정학을 고려해 바라본 세계 경제·무역 전망

- 지정학적 요인으로 분리된 경제 진영\* 추구, 중도 개도국 편입 노력 지속
- \* 중국과 서부권 국가를 각각 중심으로 한 동부, 서부 경제 진영
  - 동부 진영 내 무역 가치는 100%, 서부 진영 내 무역 가치는 40% 증가하나, 진영 간 무역 비중은 '35년까지 70% 감소할 전망
  - MGI는 현재 모델로는 세계 GDP가 '35년까지 약 1.5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, 더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한 서부 진영이 적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서부 진영 내에서도 무역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는 중국이 중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며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

[자료원] Hinrich Foundation, Inside Trade, McKinsey Global Institute, UNCTAD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